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학생의 인식

주 인숙·이 혜자·한 영숙*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신성여자고등학교*

The Recognition of Students on Appropriateness of Clothing & Textiles as Educational Contents in Practical Arts or Technical Education · Home Economics in the 7th Curriculum of Korea

Ju, In Suk · Lee, Hye-Ja · Han, Young-Sook*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Shinsung girls' High school, Je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ppropriateness of clothing & textiles as educational contents in practical arts or technology · home economics in the 7th curriculum. The factors of appropriateness were the amounts of learning, the degrees of understanding, interest and requirement on the educational content recognized b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collected from evaluation sheet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crossing analysis using SPSSWIN 12.0 program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50%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recognized the amounts of learning of clothing & textiles proper. But boy students of middle school recognized 'making clothes' in practice course too heavy. Second, It were from easy to difficult that the degrees of understanding on the educational contents of clothing & textiles recogniz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derstood both 'making cushion' and 'sewing machine theory and practice' difficult. Middle school students understood 'basic sewing for repairing clothes' and 'making clothes' difficult whereas high school students thought 'making pillow' and 'making bag' difficult. All students understood practice courses hard. Third, the degrees of interest showed from 'interest' level to 'not interest' level in cas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ereas 'interest' level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common' in high school students. Fourth, the requirem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in 'necessary' level to 'common' level. Educational

contents such as 'learning sewing machine', 'making cushions', 'making clothes', and 'making pillow-cover and bag' were low in the degrees of requirement.

The cor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learning and the each level of understand, interest and requirement of students was indirect. On the other hand, Among the level of understand, interest and requirement were direct in case of high school students.

주제어(Key Words) : The Recognition of students (학생의 인식), Appropriateness of Educational Contents (교육 내용의 적정성), Practical Arts(실과), Technology · Home Economics (기술 · 가정), Clothing & Textiles (의생활)

I. 서 론

실과 및 기술·가정교과로서 의생활 교육의 목적은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일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지게 하는 데 있다(교육부, 1997).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제 4차 교육과정부터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때까지 학습내용 감축 및 난이도 하향 조정(허경철, 2000), 교육내용 감축 및 어려운 내용의 다음 학년으로 이월(교육부, 1997) 등의 방법으로 교육내용의 적정성을 높이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제 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초등 1학년에서 고등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 기본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10개 교과를 국민공통기본교과로 제시하였고(교육부, 1999) 그 중 실과 및 기술·가정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7~9학년 및 고등학교 10학년에서 남녀 학생 모두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 내용은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 기술', '생활 자원과 환경 관리'의 3개의 영역으로 통합하였고 고등학교 11~12학년의 심화 선택과목인 가정과 학 과목과 연계되어 있다(허경철, 2000).

그러나 의생활 교육내용은 연계성, 계열성,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8학년, 고등학교 10학년 등 특정 학년에서 집중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습량은 형식적으로는 축소되었으나 실제로는 과거의 학습내용을 개괄적으로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이춘식 외, 2001). 특히, 재봉틀 사용법은 중학생에게 적합도가

가장 낮다고 이미 지적되었음에도(장현숙·조필교, 1995) 불구하고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 6학년에 편성되어 학생들은 의생활 영역에 대해 학습양이 많고 어렵다고 느껴 흥미가 떨어졌으며 불필요하다는 인식까지 갖게 되었다(박일록, 이은희, 2002). 따라서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학생들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내용 적정화와 관련한 연구 중에서 국민공통기본 10개 교과에 대한 교육내용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한 연구(이춘식 외, 2004) 등이 있기는 하나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의 세부적인 내용요소에 대한 적정화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용 중인 초·중·고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서 중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수업의 수혜자인 학생들을 판단하는 주체로 삼았으며 1) 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인식한 현행 실과 및 기술·가정의 의생활 교육내용 요소에 대한 학습량,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를 분석하여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2) 그리고 각 교육내용 요소가 학생들의 성별과 초, 중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라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또한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습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차기 교육과정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화 방안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문헌고찰

1. 제 7차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의 적정성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 6차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내용의 양을 30% 감축했고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의 다음 학년으로의 이월 등 교육내용 적정화를 위한 비교적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 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박순경 외, 2001)에서 초·중학교 학생들은 기술·가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용의 양도 많고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술과 가정 교과의 통합으로 내용이 축소되었으나 실제로는 과거의 내용을 개괄적으로나마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이춘식 외, 2001).

교육내용 적정화에 관한 연구보고서(이춘식 외, 2004 ; 김재춘, 2003 ;이경섭, 199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에 따르면 적정화의 개념은 적정성, 적절성, 적합성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나 내용의 적합성을 기반으로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 및 학습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과 수준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적정화는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야 한다.

적정화 방향은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줄이는 총론 차원의 적정화와 교육내용의 양을 줄이고 수준을 조절하는 각론 차원의 적정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적정성의 평가는 전문가, 교사 뿐 아니라 학습의 주체인 학생도 가능하므로 평가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학습경험에 기초한 교육내용 이해도에 대한 실태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그 실태는 학습내용 양이 적절한가와 실제로 학습한 교육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조사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다. 선행연구(박순경 외, 2001)에서 학교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며 단원명 수준에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한 연구에 그쳤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의 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학교시설 등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기술·가

정은 실기 중심 교과이므로 그 영향이 크다. 초등실과의 경우 실험실습을 위한 교구 및 설비의 부족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습교육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이론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었다(김형균, 2002). 이러한 환경은 흥미를 상실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실험 실습 관련한 지속적인 적정화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내용의 적정화는 교과에 따라 다르므로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가 수행능력을 중시하는 목표 우세적 교과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특성과 체계에 부합하는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을 적정화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2. 의생활 교육내용에 관련된 선행연구

기술·가정 교과의 이해도에 관한 연구(김영찬, 2003)에서 학생들은 교과의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였으며 여학생들이 평균 태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 여학생이 특히 어렵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제 7차 기술·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와 관련하여 중·고등학생들의 흥미도는 낮았으며 고등학생·남학생·농촌학생·부모학력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한다고 조사되었다(김경애 외, 2003).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의복마련과 관리' 내용요소에서, 여학생은 '의복 마련과 관리'의 내용 요소에서 흥미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었다(김영찬, 2003). 한편, 기술·가정 전체 내용에 대한 흥미도는 낮게 나타났는데(유재희, 2003) 학생들의 흥미와 실제 교육내용과 불일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요구도에 관련한 연구에서는 학생의 요구가 높은 개념들이 교육과정에서 소홀하게 다뤄지면 요구도가 저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성화경, 1994). 학생들은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교육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성화경, 1994) 특히 '의복제작' 실습에 대한 요구도는 현저하게 낮았다. (이금남 외, 1996; 유재희, 2003). 실과 및 기술·가정교과 중 특히 의생활의 요구도가 낮은 이러한 현상은 유행 지향적인 청소년들의 기성복 선호와 세탁 및 의복관리의 사회화에 기인한다고 보았다(최종명, 1998).

요구도는 학교급, 성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김경애 외, 2003; 이금남 외, 1996) 학교급별로 ‘의복 마련과 관리’의 요소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성별로는 ‘의복 마련과 관리’ ‘의복 보관법’, ‘간단한 바느질’ 등의 내용요소에서 여학생이 높았고(김경애 외, 2003) ‘의복의 역할’, ‘의생활 자원의 실태와 유통’ 등은 남학생이 높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김경숙, 박미금, 1998)도 있었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기술로 통합되어 남녀공통과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구도에 대하여 의생활 영역별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성화경, 1994)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장신구의 선택과 사용 방법’, ‘신체 청결 및 피부관리’, ‘의복구매 및 세탁보관 방법’ 등에서 요구도가 높았고 특히 ‘옷입기와 옷차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임현주, 1999). 또한 실습 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낮았고 남학생은 더욱 낮게 나타났는데 기성복의 보편화, 실습시설의 부족과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실습 교육의 부재 등에 따른 흥미와 요구도 저하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술·가정 교과적 적정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생활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화는 단순히 교육내용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성 연구는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육 내용의 양,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 실습 실태를 각 교육 내용 요소별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과서, 교육여건 등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교과서 분석

교과서 분석은 실과 5, 실과 6의 초등 국정 교과서와 3

〈표 1〉 제 7차 교육과정의 실과(기술·가정) 의생활 영역의 내용요소

초등학교	손바느질의 기초 바느질
	손바느질로 주머니 만들기
	스킬 자수로 방석 만들기
	대바늘을 이용한 목도리 뜨기
	코바늘을 이용한 손가방 만들기
	재봉틀 배우기
	쿠션이나 방석 만들기
중학교	의복의 기능
	나에게 적합한 옷차림
	양복 입기, 한복 입기
	구매 계획 및 상점의 선택
	여러 가지 옷감의 종류
	기성복을 구입할 때 살펴보아야 할 사항
	옷의 세탁과 보관
	옷의 수선에 이용되는 기본 바느질
	옷을 재활용하는 방법
	옷 만들기(반바지, 파자마)
고등학교	생활용품에 대한 이해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특성 조사
	생활용품의 구상
	식탁보나 커튼 만들기
	베게커버나 가방 만들기

개 출판사 발행된 중·고등학교 기술·가정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의 초·중·고등학교 실과 및 기술·가정에 포함된 의생활 교육내용 중에서 공통된 것을 중심으로 내용요소를 추출하였다 <표 1>.

2. 설문조사

설문 조사는 경기도에 거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5개교씩 15개교를 임의 표집하여 1개교 당 1학급을 선정 조사하였으며 배부한 600부의 질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55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교 소재지와 성별, 학습실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적정성 인식 질문지(이춘식 외, 2004)를 참고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최종 사용된 설문 내용은 <표 2>와 같이 학습내용요소의 양,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로 구성하였고 응답은 5점 Likert 척도에 표시하거나 순서를 적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2> 5점 척도 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학습량	매우 많다	많다	적당하다	적다	매우 적다
이해도	매우 쉽다	쉽다	적당하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흥미도	매우 재미있다	재미있다	보통이다	재미없다	매우 재미없다
요구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추출한 학습내용 요소의 양,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 등의 신뢰도를 검사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초·중·고등학교 각각 Cronbach's $\alpha = .90, \alpha = .77, \alpha = .76$ 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성별, 학교에 따라 학습내용의 양,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교차분석 $\chi^2(p)$ 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생활 교육내용의 학습실태

조사대상자는 초등학교 남학생이 42.3%, 여학생이 57.7%이었으며, 중학교는 각각 48.8%, 51.1%, 고등학교는 36.4%, 63.6%이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재봉틀 수업 여건이 미흡하여 재봉틀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손바느질로 실습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 본래의 목표대로 실습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재봉틀과 같은 실습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의생활 영역의 수업 중에서 이론과 활동의 호하는 비율은 <표 3>와 같다. 실습을 선호하는 비율인 이론 : 실습 30 : 70과 40 : 60을 합하면 초등학교 약 61%, 고등학교 약 45%, 중학교는 약 41%로 대체로 실습을 선호했으며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다.

이론과 실습의 선호도에 관한 남녀 학생의 차이를 보면

이론을 뚜렷이 선호하는 70:30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중·고의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는 초등학교로서 남학생이 약 14%일 때 여학생 약 2%였다. 대체로 남학생은 이론을, 여학생은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실습수업을 할 때 제작하는 물품의 크기, 의류와 생활용품 만들기 실습 방법, 의류와 생활용품 만들기 실습실 활용 비율의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중학교는 약 61%가 1/2척도를 선호했고, 고등학교는 약 75%가 실제크기로 제작하기를 선호하고 있었다.

〈표 3〉 의생활 수업 시 이론과 실습의 선호 비율

N(%)

이론: 실습		70:30	60:40	50:50	40:60	30:70	전체	x ²
초등학교	남	11(14.3)	5(6.5)	18(23.4)	15(19.5)	28(36.4)	77(100.0)	12.441*
	여	2(1.9)	7(6.7)	28(26.7)	15(14.3)	53(50.5)	105(100.0)	
	전체	13(7.1)	12(6.6)	46(25.3)	30(16.5)	81(44.5)	182(100.0)	
중학교	남	18(19.8)	18(19.8)	24(26.4)	11(12.1)	20(22.0)	91(100.0)	11.634*
	여	10(10.6)	14(14.9)	26(27.7)	29(30.9)	15(16.0)	94(100.0)	
	전체	28(15.1)	32(17.3)	50(27.0)	40(21.6)	35(18.9)	185(100.0)	
고등학교	남	16(23.9)	14(20.9)	12(17.9)	9(13.4)	16(23.9)	67(100.0)	6.424
	여	20(17.2)	12(10.3)	27(23.3)	24(20.7)	33(28.4)	116(100.0)	
	전체	36(19.7)	26(14.2)	39(21.3)	33(18.0)	49(26.8)	183(100.0)	

* p<.05

〈표 4〉 의류와 생활용품의 제작시 크기, 제작과정시 실습방법, 실습실활용비율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제작시 크기	1/2 척도	111(60.7)	35(21.0)
	실제크기	70(38.3)	126(75.4)
	기타	2(1.1)	6(3.6)
	전체	183(100.0)	167(100.0)
제작 과정 시 실습방법	제도-재단-바느질-완성	55(30.1)	95(58.6)
	재단-바느질-완성	87(47.5)	43(26.5)
	바느질-완성	41(22.4)	23(14.2)
	기타	0(0.0)	1(0.6)
	전체	183(100.0)	167(100.0)
실습실 활용 비율	교실에서 대부분 수업	167(90.3)	148(82.2)
	실습실에서 대부분 수업	7(3.8)	20(11.1)
	비슷한 비율로 수업	11(5.9)	12(6.7)
	전체	183(100.0)	167(100.0)

의류와 생활용품 만들기 실습 방법은 '제도'단계부터 실습을 하는 경우인 <제도-재단-바느질-완성> 방식이 중학교는 약 30%인 데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약 59%로 더 높았다. 중학교는 제도없이 <재단-바느질-완성>하는 방식이 약 48%로 가장 높았고 재단된 옷감으로 바로 바느질로 들어가는 방식인 <바느질-완성>도 약 2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년이 낮을수록 간단한 단계로 제작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와 생활용품 만들기 실습실 활용 비율은 실습실에서 대부분 수업하는 경우가 약 6~7%로 매우 낮았고 중, 고등학교 모두 80% 이상의 수업을 교실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성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의생활 교육 내용

〈표 5〉 초·중·고 실과(기술·가정) 의생활 영역의 양

		N(%)						x ²
		매우 많다	많다	적당하다	적다	매우 적다	전체	
초등학교	남	7(9.2)	11(14.5)	43(56.6)	12(15.8)	3(3.9)	76(100.0)	7.515
	여	3(2.9)	8(7.6)	62(59.0)	23(21.9)	9(8.6)	105(100.0)	
	전체	10(5.5)	19(10.5)	105(58.0)	35(19.3)	12(6.6)	181(100.0)	
중학교	남	15(16.5)	26(28.6)	49(53.8)	1(1.1)	0(0.0)	91(100.0)	5.992
	여	8(8.5)	34(36.2)	47(50.0)	4(4.3)	1(1.1)	94(100.0)	
	전체	23(12.4)	60(32.4)	96(51.9)	5(2.7)	1(0.5)	185(100.0)	
고등학교	남	4(6.0)	9(13.4)	40(59.7)	12(17.9)	2(3.0)	67(100.0)	2.632
	여	4(3.4)	17(14.5)	78(66.7)	13(11.1)	5(4.3)	117(100.0)	
	전체	8(4.3)	26(14.1)	118(64.1)	25(13.6)	7(3.8)	184(100.0)	

의 적정성을 학습내용의 양,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로 알아 보았다. 적정성 평가는 매우많다, 많다, 적당하다, 적다 그리고 매우적다의 5단계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1) 학습내용의 양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인식하는 의생활 영역 전체의 학습 양은 <표 5>와 같다.

초등학생은 적당하다가 약 58.0%, 중학생은 약 52%, 고등학생은 약 64% 전체 비율 중 가장 많아 전체적으로 학습량을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 학습량이 적거나 매우 적다고 인식하는 비율에서는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생활 영역의 내용요소별로 학습내용의 양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초등 실과 의생활 영역의 내용요소별 학습내용의 양에 대한 인식은 평균 3.14~3.85로 있으며 여학생이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고 남녀 모두 적당하다~적다고 인식하였다. 재봉틀 배우기와 쿠션이나 방석만들기 내용요소에서 남녀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학습량이 많다고 인식하였다(p<.05).

중학교 기술·가정에서 [의복마련과 관리]단원의 내용요소별 학습내용의 양에 대해 평균 2.46~3.59로 약간 많다~약간 적다는 범위에서 인식하였다.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남학생에게서 뚜렷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특히, 옷 만들기(반바지, 파자마)는 남학생이 2.46으로 가장 뚜렷했는데 의복실습에 대한 부담이 남학생으로 하여금 학습내용이 많다고 생각하게 한 요인인 듯 하다.

고등학교 기술·가정 [직물을 이용한 생활 용품 만들기]단원의 내용요소별 학습내용의 양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 없이 전체적으로 2.97~3.35의 영역에 있어 적당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이 학습량이 적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 중 고등학교 모두에서 여학생이 전체적으로 학습량이 적다고 하였으며 특히 남학생이 만들기와 관련된 실습영역에서 학습량이 많다고 한 점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의생활영역에 대한 여성취향적 성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습량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초등학생은 배워야 할 개념과 설명이 많으며(약 44%),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약 30%)으로 인식하였다. 중학생은 배워야 할 개념과 설명이 많고(약 58%), 활동중심 수업을 해야 하므로 수업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약13%)으로 인식하였다. 고등학생은 남, 녀 학생의 인식이 차이가 났었는데 남학생은 배워야 할 개념과 설명이 많다고 인식했으며 여학생은 활동 중심 수업을 해야 하므로 수업 시간이 부족하며 활동 위주의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인식하였다.

<표 6> 초·중·고 실과 및 기술·가정 의생활 영역에서 내용요소별 학습내용의 양

M(SD)

학교급	내용요소	남	여	t값
초등학교	손바느질의 기초 바느질	3.17(0.71)	3.31(0.72)	-1.35
	손바느질로 주머니 만들기	3.05(0.72)	3.20(0.76)	-1.32
	스킬 자수로 방식 만들기	3.18(0.90)	3.34(1.07)	-1.07
	대바늘을 이용한 목도리 뜨기	3.51(1.03)	3.51(1.03)	-0.05
	코바늘을 이용한 손가방 만들기	3.88(1.03)	3.83(0.92)	0.38
	재봉틀 배우기	3.12(1.14)	3.54(1.28)	-2.33*
	쿠션이나 방식 만들기	3.19(1.26)	3.65(1.12)	-2.56*
중학교	의복의 기능	2.60(0.81)	2.71(0.78)	-0.92
	나에게 적합한 옷차림	2.78(0.87)	3.01(0.80)	-1.88
	양복 입기, 한복 입기	2.82(0.98)	2.81(0.88)	0.11
	구매 계획 및 상점의 선택	2.76(0.86)	2.99(0.80)	-1.90
	여러 가지 옷감의 종류	2.52(0.94)	2.51(0.89)	0.04
	기성복을 구입할 때 살펴보아야 할 사항	2.87(0.86)	2.96(0.80)	-0.73
	옷의 세탁과 보관	2.63(0.90)	2.78(0.76)	-1.22
	옷의 수선에 이용되는 기본 바느질	2.51(0.99)	2.67(0.95)	-1.15
	옷을 재활용하는 방법	2.97(1.03)	3.59(3.22)	-1.75
고등학교	옷 만들기(반바지, 파자마)	2.46(1.09)	2.78(1.02)	-2.03*
	생활용품에 대한 이해	2.63(0.83)	2.80(0.78)	-1.44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특성 조사	2.99(1.04)	3.05(0.87)	-0.46
	생활용품의 구상	2.97(0.90)	2.97(0.79)	-0.03
	식탁보나 커튼 만들기	3.31(1.06)	3.34(1.01)	-0.18
	베개커버나 가방 만들기	3.22(1.11)	3.35(0.93)	-0.83

*p<.05

2) 이해도

초·중·고 실과 및 기술·가정 의생활 영역에서 교육내용 요소별로 이해도를 조사하여 적정성을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8>와 같다.

초등학생의 이해도는 2.15~4.3로 쉽다~어렵다의 범위에 있었으며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의 점수가 높아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쿠션이나 방식 만들기', '재봉틀 배우기'를 어렵게 느꼈으며 '코바늘을 이용한 손가방 만들기', '기초 손바느질'을 가장 쉬운 것으로 이해하였다.

중학교는 2.72~3.95로 적당하다~어렵다의 범위에 분포하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해도가 낮은 항목이 더 많았

는데 이는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이해도가 낮았던(p<.001) 김영찬(2003)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특히 남학생은 '옷의 수선에 이용되는 기본 바느질', '옷 만들기(반바지, 파자마)'에서 이해도가 낮았고, 여학생은 '여러 가지 옷감의 종류', '옷 만들기(반바지, 파자마)'에서 이해도가 낮았다.

고등학교의 이해도는 2.73~3.58의 범위에 있어 적당하거나 다소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베개커버나 가방 만들기', '식탁보나 커튼 만들기' 등이 가장 이해도가 낮았다.

이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뜨개질, 재봉틀, 옷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등 실제로 제작하는 실습영역에 대해 가장 이해도가 낮았다. 그 원인은 실습관련 활동을 하

<표 7>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의생활 영역의 학습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

N(%)

이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배워야 할 개념과 설명이 많다	8 (44.4)	4 (44.4)	12 (44.4)	22 (53.7)	26 (61.9)	48 (57.8)	5 (38.5)	3 (15.0)	8 (24.2)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의 수가 너무 많다	6 (33.3)	2 (22.2)	8 (29.6)	5 (12.2)	4 (9.5)	9 (10.8)	2 (15.4)	0 (0.0)	2 (6.1)
활동중심 수업을 해야 하므로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	2 (11.1)	1 (11.1)	3 (11.1)	5 (12.2)	6 (14.3)	11 (13.3)	2 (15.4)	7 (35.0)	9 (27.3)
활동위주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	1 (5.6)	2 (22.2)	3 (11.1)	3 (7.3)	2 (4.8)	5 (6.0)	2 (15.4)	7 (35.0)	9 (27.3)
교과서에서 다루는 활동이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0 (0.0)	0 (0.0)	0 (0.0)	5 (12.2)	3 (7.1)	8 (9.6)	2 (15.4)	3 (15.0)	5 (15.2)
기타	1 (5.6)	0 (0.0)	1 (3.7)	1 (2.4)	1 (2.4)	2 (2.4)	0 (0.0)	0 (0.0)	0 (0.0)
전체	18 (100.0)	9 (100.0)	27 (100.0)	41 (100.0)	42 (100.0)	83 (100.0)	13 (100.0)	20 (100.0)	33 (100.0)
χ^2	2.250			3.224			7.090		

기에 불충분한 설비와 수업시간 부족, 학년에 맞지 않은 내용 선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초등 실과 의생활 교육 내용요소 중 재봉틀 사용 관련 교육내용은 이수 학년을 이동 및 삭제 또는 쉽게 재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실습관련 교육내용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흥미있도록 재구성하는 것과 실습활동은 학생의 활동을 위주로 해서 학생의 생활과 익숙한 경험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3) 흥미도

초·중·고 실과(기술·가정) 의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요소에 대한 흥미도는 <표 9>에 나타났다.

초등학교생은 흥미도 점수가 2.22~3.87의 범위로 재미있다~재미없다고 인식하였으며 여러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흥미도가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쿠션이나 방석 만들기', '재봉틀 배우기' 등 재봉틀과 관련된 내용요소에서 대체로 흥미가 없었으며 여학생은 '스킬 지수로 방석 만들기', '대바늘을 이용한 목도리 뜨기' 등에서는 재미있다고 인

식하였다.

중학생의 흥미도는 대부분의 내용요소에서 3.0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어 재미없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은 '옷 만들기(반바지, 파자마)'에서 여학생은 '여러 가지 옷감의 종류'에서 가장 흥미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김영찬(2003)의 연구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하여 흥미도가 높게 나왔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로서 동일한 내용요소에 대해 학습량이 남학생은 많다고 인식했고($p < .05$),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던 결과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는 흥미도 점수가 평균 2.89~3.30으로 보통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은 '생활용품에 대한 이해'에서 흥미를 더 느끼는 반면 여학생은 '식탁보나 커튼 만들기', '베개커버나 가방만들기' 등 실습 영역에서 흥미를 더 느끼고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고찰하면 초등학교에서 재봉틀 다루기, 쿠션이나 방석만들기 등 실습 영역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낮을 뿐 아니라 학습량도 많고, 이해도도 낮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 내용요소를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이동하여 학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

〈표 8〉 초·중·고 실과(기술·가정) 의생활 영역의 내용요소별 이해도

M(SD)

학교급	내용요소	남	여	t값
초등학교	손바느질의 기초 바느질	2.48(0.87)	2.20(0.84)	2.18*
	손바느질로 주머니 만들기	2.77(0.84)	2.49(0.97)	2.03*
	스킬 자수로 방식 만들기	2.53(1.08)	2.15(1.01)	2.44*
	대바늘을 이용한 목도리 뜨기	3.61(0.86)	2.86(1.17)	4.78***
	코바늘을 이용한 손가방 만들기	3.73(0.90)	3.50(1.01)	1.60
	재봉틀 배우기	3.79(1.08)	3.81(0.99)	-0.11
	쿠션이나 방식 만들기	4.30(0.81)	3.83(1.06)	3.25**
중학교	의복의 기능	2.91(1.03)	2.74(0.88)	1.19
	나에게 적합한 옷차림	2.87(1.02)	2.72(0.77)	1.09
	양복 입기, 한복 입기	3.34(1.00)	3.51(0.77)	-1.29
	구매 계획 및 상점의 선택	2.85(1.01)	2.87(0.77)	-0.20
	여러 가지 옷감의 종류	3.43(0.99)	3.69(0.87)	-1.92
	기성복 구입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	3.22(0.99)	3.00(0.78)	1.69
	옷의 세탁과 보관	3.16(1.04)	3.23(0.71)	-0.60
	옷의 수선에 이용되는 기본 바느질	3.95(3.24)	3.47(0.83)	1.38
	옷을 재활용하는 방법	3.08(1.01)	2.82(0.82)	1.91
고등학교	옷 만들기(반바지, 파자마)	3.81(1.06)	3.65(0.88)	1.15
	생활용품에 대한 이해	2.73(0.88)	2.70(0.62)	0.27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특성 조사	2.99(0.99)	3.09(0.66)	-0.90
	생활용품의 구상	3.03(0.89)	3.18(0.70)	-1.26
	식탁보나 커튼 만들기	3.46(0.94)	3.46(0.83)	0.01
베개커버나 가방 만들기	3.58(0.99)	3.50(0.88)	0.55	

*p<.05, **p<.01, ***p<.001

생에 비해, 중학생은 초,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흥미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흥미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수업내용이나 수업방법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로써 중학생의 경우 ‘옷 만들기(반바지, 파자마)’는 학습내용의 양이 많고, 이해도가 낮게 인식했으나 흥미도는 높았으므로 학습량을 조금 줄이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대체된다면 흥미도가 증진되고 적절한 내용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등학교의 경우도도 마찬가지로 생활용품 만들기 실습 영역에서 흥미도가 낮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학습량과 수준(이해도)을 조절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요구도

초·중·고 실과 및 기술·가정의 의생활 영역에 대한 적정성을 내용요소별 요구도로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초등학생은 요구도 점수가 2.03~3.45로 필요하다~보통이다의 범위에 있었으며 특히 ‘기초 손바느질’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대바늘을 이용한 목도리 뜨기와 코바늘을 이용한 손가방 만들기’를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p<.001~p<.05). 이러한 결과도 또한 여성취향적 성향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재봉틀 배우기와 방식만들기와 같은 실습영역의 요구도가 낮았다.

〈표 9〉 초·중·고 실과 및 기술·가정 의생활 영역에서 내용요소별 흥미도

M(SD)

학교급	내용요소	남	여	t값
초등학교	손바느질의 기초 바느질	2.86(1.06)	2.69(1.02)	1.10
	손바느질로 주머니 만들기	2.94(1.14)	2.50(0.90)	2.85**
	스킬 자수로 방석 만들기	2.69(1.15)	2.22(1.00)	2.93**
	대바늘을 이용한 목도리 뜨기	3.31(1.17)	2.32(1.23)	5.46***
	코바늘을 이용한 손가방 만들기	3.69(0.98)	3.02(1.13)	4.17***
	재봉틀 배우기	3.71(1.05)	3.66(1.11)	0.35
	쿠션이나 방석 만들기	3.87(1.15)	3.51(1.26)	1.95
중학교	의복의 기능	3.00(1.07)	3.11(0.73)	-0.79
	나에게 적합한 옷차림	3.00(1.03)	2.89(0.94)	0.73
	양복 입기, 한복 입기	3.36(1.06)	3.22(0.97)	0.93
	구매 계획 및 상점의 선택	3.11(1.08)	3.28(0.88)	-1.15
	여러 가지 옷감의 종류	3.44(1.01)	3.80(0.96)	-2.47*
	기성복을 구입할 때 살펴보아야 할 사항	3.32(1.03)	3.35(0.85)	-0.23
	옷의 세탁과 보관	3.14(0.97)	3.26(0.88)	-0.83
	옷의 수선에 이용되는 기본 바느질	3.43(1.14)	3.29(1.11)	0.85
	옷을 재활용하는 방법	3.34(1.04)	3.22(0.99)	0.79
	옷 만들기(반바지, 파자마)	3.52(1.28)	2.88(1.25)	3.41***
고등학교	생활용품에 대한 이해	2.90(1.00)	3.15(0.83)	-0.87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특성 조사	3.09(1.07)	3.42(0.85)	-1.34
	생활용품의 구상	3.10(0.97)	3.27(0.87)	-0.32
	식탁보나 커튼 만들기	3.07(1.15)	2.88(1.15)	-0.87
	베개커버나 가방 만들기	3.16(1.05)	2.73(1.18)	-0.18

*p<.05, **p<.01, ***p<.001

중학교는 요구도 점수가 2.27~3.52로 역시 필요하다~보통이다의 범위에 있었으며 '옷 만들기(반바지, 파자마)'가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옷의 세탁과 보관'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내용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옷의 수선에 이용되는 기본 바느질'의 경우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5) 나머지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생활 영역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김경숙, 1998) 및 실습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던 연구(성화경, 1994; 이금남 외, 1996; 임수경, 2003)와 비슷하였다.

고등학교는 요구도 점수 2.64~3.04로 남학생은 '베개커버나 가방 만들기'에서 여학생은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특성 조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았으나 주로

보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성을 학습내용의 양,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로 조사한 결과를 고찰하면 초등학교생은 이해도가 낮았던 '재봉틀 배우기', '쿠션이나 방석 만들기'에서 요구도가 가장 낮았으며 중학생도 학습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했던 것 '옷 만들기' 실습 영역의 요구도 역시 낮았다. 고등학생도 이해도가 낮았던 '생활용품 만들기' 실습 영역에서 요구도도 낮게 나타났다.

3. 적정성 요인 간 상관관계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성을 학습내용의 양,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로 조사한 지금까지의 결과를 고찰하면 각 적

<표 10> 초·중·고 실과(기술·가정) 의생활 영역의 내용요소별 요구도

M(SD)

학교급	내용요소	남	여	t값
초등학교	손바느질의 기초 바느질	2.19(0.97)	2.03(0.91)	1.18
	손바느질로 주머니 만들기	2.74(1.07)	2.50(0.88)	1.63
	스킬 자수로 방석 만들기	2.70(1.10)	2.72(0.90)	-0.15
	대바늘을 이용한 목도리 뜨기	2.82(1.19)	2.24(0.93)	3.70***
	코바늘을 이용한 손가방 만들기	3.09(1.08)	2.71(1.04)	2.38*
	재봉틀 배우기	3.35(1.26)	2.99(1.30)	1.86
	쿠션이나 방석 만들기	3.45(1.32)	3.06(1.28)	2.04*
중학교	의복의 기능	2.63(0.96)	2.86(0.73)	-1.88
	나에게 적합한 옷차림	2.78(0.92)	2.61(0.82)	1.36
	양복 입기, 한복 입기	2.60(1.06)	2.43(0.92)	1.22
	구매 계획 및 상점의 선택	2.58(1.08)	2.53(0.88)	0.35
	여러 가지 옷감의 종류	2.90(1.14)	3.05(0.95)	-0.99
	기성복을 구입할 때 살펴보아야 할 사항	2.69(1.03)	2.57(0.81)	0.87
	옷의 세탁과 보관	2.46(1.05)	2.27(0.76)	1.46
	옷의 수선에 이용되는 기본 바느질	2.86(1.07)	2.50(0.96)	2.39*
	옷을 재활용하는 방법	2.97(0.99)	2.70(0.84)	1.96
옷 만들기(반바지, 파자마)	3.14(1.13)	3.52(5.44)	-0.64	
고등학교	생활용품에 대한 이해	2.64(0.83)	2.72(0.82)	-0.60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특성 조사	2.75(0.89)	2.90(0.82)	-1.16
	생활용품의 구상	2.66(0.90)	2.87(0.88)	-1.59
	식탁보나 커튼 만들기	3.01(1.05)	2.85(0.87)	1.11
	베개커버나 가방 만들기	3.04(1.16)	2.86(0.87)	1.20

*p<.05, ***p<.001

정성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리라 예측되었다.

초등, 중, 고등 학교 실과 및 기술·가정의 의생활 단원에서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량과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 등의 4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초등학생의 실과 의생활 단원에서 학습량과 이해도, 학습량과 흥미도, 학습량과 요구도의 경우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해도와 흥미도, 이해도와 요구도, 흥미도와 요구도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생활 단원의 학습량이 많을수록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가 낮았고 의생활 단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흥미도, 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흥미도가 높을수록 단원에 대한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기술·가정 의생활 단원에서도 초등학생의 경우와 같이 4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량과 이해도, 학습량과 흥미도, 학습량과 요구도의 경우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해도와 흥미도, 이해도와 요구도, 흥미도와 요구도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관계 계수가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보다 높았다.

고등학교의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 달리 학습량과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도와 흥미도, 이해도와 요구도, 흥미도와 요구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실과 및 기술·가정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성 요인 간의 상관관계

학교급		학습량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
초등학교	학습량	1			
	이해도	-.228**	1		
	흥미도	-.170*	.277**	1	
	요구도	-.173*	.247**	.457**	1
중학교	학습량	1			
	이해도	-.383**	1		
	흥미도	-.258**	.504**	1	
	요구도	-.308**	.431**	.584**	1
고등학교	학습량	1			
	이해도	-.062	1		
	흥미도	-.088	.333**	1	
	요구도	-.134	.244**	.384**	1

*p<.05, **p<.01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습량,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를 분석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현행교과서의 내용요소에 대해 설문 조사한 뒤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초, 중, 고등학생 의생활 실습의 실태는 80% 이상을 교실에서 수업하여 실습실 활용 비율이 저조했고 재봉틀 수업 경험이 없었으며 주로 손바느질로 실습을 하였다. 실습을 선호하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약 61%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이 활동을 더 선호하였다. 제작하는 물품의 크기는 중학생은 1/2척도를, 고등학생은 실제크기를 선호했다. 제작 순서는 <제도-재단-바느질-완성>의 단계인데 고등학교는 '제도'단계부터, 중학교는 '재단'부터 시작하였고 초등학생은 바느질부터 시작하는 방식도 높아 학년이 낮을수록 간단한 단계로 제작하기를 선호하였다.

둘째, 실과 및 기술·가정에서 의생활 영역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습내용의 양,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습량은 초·중·고등학생 모

두 50% 이상이 적정하다고 인식하였고 남자 중학생은 특히 '옷 만들기'를 많다고 인식하였다. 2) 이해도는 초등학생은 쉽다~어렵다, 중·고등학생은 적당하다~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초등학생은 '재봉틀을 이용하여 쿠션이나 방석 만들기', '재봉틀 배우기'에 대하여, 중학생은 '옷의 수선에 이용되는 기본 바느질'과 '옷 만들기', 고등학생은 '베개 커버나 가방 만들기', '식탁보나 커튼 만들기' 등 모두 실습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았다. 3) 흥미도는 초등학생은 재미있다~재미없다고 인식하였으며 '재봉틀을 이용하여 쿠션이나 방석 만들기', '재봉틀 배우기' 등에서 낮았다. 중학생은 재미없다로, 고등학생은 보통으로 인식하였다. 4) 요구도는 초, 중, 고등학생 모두 필요하다~보통이라고 인식하였는데 '재봉틀 배우기', '재봉틀을 이용하여 쿠션이나 방석 만들기', '옷 만들기', '베개커버나 가방 만들기' 등에서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았다

이와 같이 남학생이 만들기와 관련된 실습영역에서 학습량이 많다고 인식하고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뜨개질, 재봉틀, 옷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등 실습영역에 대해 가장 이해도가 낮은 원인은 실습관련 활동을 하기에 불충분한 설비와 수업시간 부족, 학년에 맞지 않은 내용 선정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초등 실과 의생활 교육 내용요소 중 재봉틀 사용 관련 교육내용은 이수 학년을 이동 및 삭제 또는 쉽게 재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재봉틀 다루기, 쿠션이나 방석만들기 등의 실습 영역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낮을 뿐 아니라 학습량도 많고, 이해도도 낮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 내용요소를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이동하여 학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중학생은 초,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흥미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흥미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수업내용이나 수업방법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옷 만들기(반바지, 파자마)'는 학습내용의 양이 많고, 이해도가 낮게 인식했으나 흥미도는 높았으므로 학습량을 조금 줄이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대체된다면 흥미도가 증진되고 적절한 내용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활용품 만들기 실습 영역에서 흥미도가 낮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학습양과 수준(이해도)을 조절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세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습량과 이해도·흥미도·요구도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 들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학습량이 많을수록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가 낮았고 의생활 단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흥미도나 요구도도 증가하였다. 반면 고등학생은 학습량과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들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실습관련교육내용에서 초등학생은 이해도가 낮았던 '재봉틀 배우기', '쿠션이나 방석 만들기'에서 요구도가 가장 낮았으며 중학생도 학습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했던 것 '옷 만들기' 실습 영역의 요구도 역시 낮았다. 고등학생도 이해도가 낮았던 '생활용품 만들기' 실습 영역에서 요구도도 낮게 나타나 실습영역에 대한 학습량과 학습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초, 중, 고등학생들이 의생활실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실습실 설비 및 재봉틀을 갖추는 등 교육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실과 및 기술·가정에서 의생활 영역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습내용의 양에서 특히 남자 중학생은 특

히 '옷 만들기'를 많다고 인식하고 초·중 고등학생 모두 실습 영역에 대한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가 낮은 등 실습 교육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교육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초등 실과 의생활 교육 내용요소 중 재봉틀 사용 관련 교육내용은 이수 학년을 이동 및 삭제 또는 쉽게 재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실습 관련한 학습내용의 양이 많고, 이해도가 낮게 인식했으나 흥미도는 낮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학습양과 수준(이해도)을 조절하고 교육내용을 흥미있도록 재구성하는 것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수업내용이나 수업방법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하며 실습활동은 학생의 활동을 위주로 해서 학생의 생활과 익숙한 경험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7).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I)-수학, 과학, 기술·가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2). 초등 실과 5.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2). 초등 실과 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김경숙, 박미금(1998).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 학습 요구도 및 가정 생활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2), 67-78.
김경애 외(2003). 중·고등학생의 제 7차 기술·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101-120.
김기수(2001). 고등학교 기술·가정. 서울: (주)지학사.
김영찬(2003).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중학생들의 태도 연구. 석사 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재훈(2003). 국가 교육과정 개정 담론의 비교 분석(I). 교육과정 연구, 21(2).
김정자(1998). 제 7차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2), 185-196.
김판옥 외(2001). 중학교 기술·가정 2. 서울: (주)지학사.
김형균(2002). 우리나라 실과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5(4), 93-102.
박순경 외(2001).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비교 연구(III): 국가수준

교육과정 질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RRC
20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일록·이은희(2002).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에 관한 연구, 한
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1), 39-54.

성화경(1994). 중, 고등학교 가정과목 의생활분야 교육내용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61-72.

유재희(2003).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운영과 내용에 대한 학습
자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경섭(1999). 교육과정 쟁점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이금남 외(1996).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영역별
필요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1-10.

이상혁 외(2001). 중학교 기술·가정 2. 서울: (주)두산.

이승신 외(2001). 고등학교 기술·가정. 천재교육.

이춘식(2002). 기술·가정과에서 기술 영역의 교육내용에 대한 적
절성 평가.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7(2), 83-94.

이춘식 외(2001). 실과(기술·가정)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I). 연구

보고 RRC 200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춘식 외(2004). 실과(기술·가정)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연구보고 RRC 2004-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현주(1999).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장현숙·조필교(1995). 중학교 가정교과서 의생활 및 의생활 단원
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활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2), 113-123.

정성봉 외(2001). 중학교 기술·가정 2. 서울: (주)교육사.

정성봉 외(2001). 고등학교 기술·가정. 서울: (주)교육사.

최종명(1998). 가정교과 의생활 영역에 대한 교육내용 필요도 및
교육자료의 활용 실태.

허경철(2000).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 설정의 배경.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의 초·중등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에 포함된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습량, 이해도, 흥미도 그리고 요구도를 교육 내용 요소별로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경기도 초·중고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질문지를 통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중고 남녀학생들의 50% 이상이 초·중등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에 포함된 의생활 교육내용의 학습량은 적당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남학생들은 반바지 만들기 등의 실습과정에 대해 학습량이 많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의생활 교육 내용에 대한 초·중고 남녀학생들은 모두 뜨개질, 재봉틀, 옷만들 및 생활용품 만들기 등 실제로 작품을 제작해야하는 실습영역에 대해 이해도가 낮았다.

셋째, 초등학교 학생들은 재봉틀을 이용한 실습영역에 대한 흥미도가 낮았으며 이는 학습량이 많다고 하고, 이해도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 중학생들은 학습량이 많고, 이해도가 낮은 반면 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학습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흥미도가 보통이었다.

넷째, 학생들의 요구도는 '필요하다'와 '보통'이었으며 교육내용 중 실습관련 내용에의 요구도가 매우 낮았다.

초·중등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에 포함된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습량,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 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습량과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간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해도, 흥미도, 요구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고등학생에서는 이해도와 흥미도, 요구도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논문접수일자: 2006년 2월 24일, 논문심사일자: 2006년 7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8월 8일